

세계인 장보고 대사의 도전과 개척정신을 알리기 위한 【장보고의 꿈】
책자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책자 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사) 장보고연구회 박봉욱 회장님과 임원여러분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1200년 전, 장보고 대사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동북아시아 해상
무역을 주도하였으며,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역사서에 등장하는 우리
나라 최초의 세계인이자 해상 무역 왕입니다.

당나라의 유명 시인 두목은 장보고 대사를 ‘동양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천태종의 3대 수좌였던 엔닌은 ‘청해진 대사의
어진 덕을 삼가 우러러 볼 따름입니다.’라고 극진한 예우를 했으며,
미국 역사학자 라이샤워는 ‘해양상업 제국의 무역 왕이다.’라고 극찬을
합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는 완도인 장보고, 세계인 장보고
대사의 활동사를 고증하기 위해 우리 준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장보고
대사가 창건한 사찰인 법화사지의 정밀 발굴 조사를 완료하였고, 사적
지정과 청해진 유적 보존 등 장보고 대사 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또한, 장보고 대사의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이어 받아 대한민국의
경제 및 문화 영토를 확장하고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분들의 공을
기리고자 장보고한상 어워드를 제정하였습니다.

올해까지 스물다섯 분이 장보고한상을 수상하셨으며, 수상자분들께서는
우리 준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장보고 대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보고 대사의 정신과 위업을 재평가하고 확산시키는 단계
였다면 이제는 세계화하고 미래화 하는데 우리 준과 장보고연구회,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07월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